

**아홉번 째 동영상: 피의 월요일**  
**1963 버지니아 댄빌에서 있었던 비폭력 시위와 경찰의 폭압**  
**캐롤린 윌슨 이야기**

**여는 기도(인도자)**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위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

**성경본문: 아모스 5:10-15**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새번역)

**묵상**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소리를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불의한 이를 취한 것, 무고한 이들을 억압한 것, 그리고 법정이 정의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청하게 될 동영상과 관련되어 두 가지 비판이 크게 눈에 띄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적 불의의 수혜자들은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런 이들은 오히려 입을 다물고 횡행하는 악을 거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을 비판하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등장하면서 그는 이 침묵의 보호막을 깨뜨리고, 거칠고 용감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미국의 인종차별을 도운 것은 침묵,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현 상황에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1950-60년대 일어난 인권운동은 아모스와 같이 미 남부의 인종 분리를 둘러싼 침묵의 벽을 깨뜨리고 흑인들에 대한 처우의 악함을 소리높여 지목하였습니다.

참을 말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사실상 공조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일에 있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처럼 용감하게 우리의 집단적 죄들을 지적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함을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동영상: 댄빌에서 있었던 피의 월요일**

### **토의 질문**

1. “It wasn’t something you discussed, it was just there (“차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현실이었다”)” – 캐롤린 월슨.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란 가정은 사회적 불의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2.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의논, 또는 보상하기에 주저하는 역사적 불평등 또는 불의가 있습니까?
3.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듯 하지만 당신에게는 옳지 못하게 여겨지는 당면 이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들**

1. 과거를 인정함이 없이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슴아픈 과거사를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2. 앞서 말한 이슈들 중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3.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십시오. 혹시 종교인 또는 인권운동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 **마치는 기도**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위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